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인식에 따른 성조 실현 연구

Kwon Ki Hyeon

경희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학 전공 석사과정

Abtract

Kwon Ki Hyeon, 2015.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ones by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following their recognition of final consonants; Studi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intonations have been mostly the analyses of predicates‟ intonation patterns. In the experiment, the forms of syllables containing final consonants ‘ㄱ’, ‘ㄷ’, ‘ㅆ’, ‘ㅂ’, ‘ㄴ’, ‘ㅁ’, ‘ㄹ’ appearing in intonation curv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ms of pitches appeared in the first syllables of predicates in voice files of reading of presented texts by five participants that completed the first semester of undergraduate studies of Korean linguistic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articulations of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n native speakers in that they showed intonations in the form of LHLL curves in phonological phrases of predicates in declarative sentences but their gaps between individual pitches were shown to be a little larger than the normal gaps between pitches of Korean native speakers. In particular, when final consonants were implosives, the pitches of the relevant syllables appeared as modified tones in which the slope of Vietnamese language‟s tones, Thanh Sac and Thanh nang became larger so that the curves stood out further. That is, the intonations appearing in the articulations of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ppeared in the form of individual tones not as intonation curves. In educating the intonations of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tones expected to stand out relatively less should be presented together with original tones so that the learners can accept the intonations more naturally.

Keywords: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prosody education, tone, final consonant, gaps between pitches

1. 서론

1.1. 논의의 목적과 필요성

베트남어는 성조 언어로서, 고정 강세어인 한국어의 운율과 달리 개별 음절에 성조가 얹힘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의 운율에 대한 인식도 비성조어권 학습자의 운율 인식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운율을 지도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하나, 현재의 한국어 운율 교육은 한국인 모국어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운율패턴을 비교하고,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운율

패턴과 다를 경우 이를 오류로 규정하여 한국인 화자의 운율 패턴을 지도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운율은 모국어 화자 간에도 개별적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발화라도 발화할 때마다 운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같은 운율 패턴이라 하더라도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해당 운율에 대한 인식과 산출 형태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조 언어권 학습자의 운율을 연구하기 위해 개별 음절이 성조와 갖는 관련성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어는 기본 음높이가 한국어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성조 패턴이 다양하고 음높이의 편차도 한국어보다 크며, 성조가 음절 내 음운 실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은선 (2012)은 성조 언어권 학습자 집단의 하나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종성 /k, t, p/을 발음할 때 다른 음절에 비해 높은 음 형태의 돋들림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한국어의 특정 형태의 음절 음높이가 베트남인 학습자로 하여금 성조로 인식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 종성이 포함된 서술어 음운구의 첫 음절에서 나타나는 성조 형태를 연구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낭독 발화에서 나타난 목표 음절의 음높이와 기울기를 통해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화자 간 종성과 운율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운율 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1.2. 선행 연구

선행 연구는 크게 한국어에서의 개별 음운과 운율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와 방언에서의 음높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제2언어 학습자의 운율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의 개별 음운과 운율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는 Jun (2000)이 있다.

Jun (2000)은 초성 자음을 고성조군과 저성조군으로 구별했는데, /ㅃ, ㄸ, ㄲ, ㅉ, ㅆ, ㅍ, ㅌ, ㅋ, ㅊ, ㅎ, ㅅ/이 고성조군에 해당하며, 저성조군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을 말한다. 이는 특정 음운이 음절의 음높이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ao, Wen-Kai (2013)은 어휘의 출현 환경에 따라 해당 어휘의 각 음절에서 나타나는 음높이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한국인 모국어 화자는 하나의 개별 단어를 발화할 때 음절의 경중과 무관하게 2음절 단어의 경우 HL로, 3음절 단어는 첫음소의 음높이에 따라 LHL 또는 HHL 억양으로 발음했으며, 4음절 단어는 첫음소의 음높이에 따라 LHLL 또는 HHLL의 억양으로 발음했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라도 실제 문장 내에서 발화될 때는

2음절 어휘는 LH의 상승곡선 또는 HH 패턴으로 발화되었고, 4음절의 경우 첫음소의

음높이가 낮을 때는 LHLL 또는 LHLH로 나타나고 높은 때는 LLHH로 나타남으로써 개별 어휘를 발화할 때와 문장을 발화할 때 음운구 및 억양구 차원의 억양 패턴이 달라진다고 보고, 이것이 외국인 학습자의 운율 오류에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인 화자의 운율 인식에 대한 연구는 조성문 (2000)이 있다. 한국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장단과 고저를 운율로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화자들은 장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고저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언중들은 이를 인식하고 구별하려는 함으로써 기존에 운율로 인식되던 장단뿐만 아니라 고저에도 운율로서의 속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베트남어 운율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한국어-베트남어 대조연구에서 약간 언급된 것이 전부이다. 베트남 현지의 연구는 Doan Tien Tuet (2005)으로, 성조는 음절의 모음에 얹혀 나타나나 베트남어의 상승 성조인 타인 삭과 하강 입성 성조인 타인 낭이 /k, t, p/가 종성으로 포함된 음절에서는 변이 성조가 나타남을 언급했다.

한국어 학습자의 운율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접근은 종결, 연결어미에서 나타나는 음운구 패턴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서법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가 많다. 이중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운율에 대한 연구는 이은선 (2012), 최혜진 (2013), 김선희 (2013)가 있으며, 개별 음운과 관련된 연구에서 운율을 함께 다룬 연구는 강정희 (2009), 정진숙 (2011)이 있다.

강정희 (2009)는 직접적으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운율에 대하여 다루지는 않았으나, 학습자들이 의문문 억양구 발화에서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타인 콩 저우만으로 발화하다가 문장 끝만 끌어올리는 어색한 억양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에 성조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진숙 (2011)은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은 둘 다 한국어 운율 패턴을 모국어 화자처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강세구로 발음해야 할 부분을 억양구로 발음하는 등 억양 오류가 나타났음을 밝혔으나 결혼이주여성 학습자들이 모국어 화자의 운율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은선 (2012)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평서문과 의문문 강세구에서 나타나는 억양 패턴을 조사했다. 학습자들은 억양 교육을 받았음에도 평서문과 의문문 억양구를 발화할 때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실제 발화에서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다.

최혜진 (2013)은 베트남 학습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강세구와 억양구의 억양 오류 패턴 및 개별 오류 유형의 발생 빈도를 제시했다. 억양구 차원의 오류는 모든 음절을

H의 단일 성조로 발음하는 유형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이를 첫 음높이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로 보았다. 이는 유일하게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과 개별 강세구 억양에서 오류와 문미 억양의 오류 유형과 각 오류의 빈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음높이를 재설정해야 하는 억양구와 그렇지 않은 억양구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오류의 원인을 피상적으로만 다루었다는 데서 한계가 있다.

1.3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종성과 해당 음절 성조의 관계이다. 그 중 베트남 학습자의 통제된 낭독 발화문에 포함된 서술어 음운구 첫 음절에 나타나는 음절의 성조 형태로서, 해당 음절의 음높이와 Pitch의 길이, 기울기를 통해 음절에서 나타나는 성조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과 운율 구조

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종성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둘 다 초성-중성-종성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종성의 불파음화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한국어의 종성 위치에서 /k, t, p, n, m, ŋ, l/의 음가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베트남어는 /l/이 없는 /k, t, p, n, m, ŋ/의 6종성 체계이다.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의 종성은 연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표기와 음가가 대응하는데, 후행 음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 음절 내 선행 모음의 영향을 받아 /k/, /m/의 경우 /w/와 만나면 / ŋ/와 동시조음하여 발음되기도 한다.

2.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운율

운율은 말소리의 음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각 소리의 음성학적 특징을 결정한다. 이들은 분절음 또는 분절음 이상의 단위에 얹혀서 나타나나 분절음의 음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강세, 리듬, 억양, 성조, 음장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높이와 크기,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중 음높이는 해당 음운의 주파수를 말한다. 성대의 진동 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성대가 빠르게 진동할수록 높은 소리, 느리게 진동할수록 낮은 소리로 발성된다. 높이는 유성음인 모음에서 나타나는데, 한 음운의 음파에서는 동일한 패턴의 주기가 반복되며, 1초 동안 이 주기가 반복되는 수를 헤르츠 (Hz)로 표기하여 음높이의 단위로 사용한다.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개별 어휘의 의미 변별을 수행하는 성조로 나타나거나 문장 또는 음운구에 얹혀 서법의 변별 기능을 하거나 화용론적 기능, 화자의 감정 및 태도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신지영 (2011:264)은 음운구에서 나타나는 억양곡선을 통해 단어 내에서 특별히

돋들리는 음절이 없고 어휘부에 등재된 운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어를 음절 박자

언어로 보고 있다. 즉, 특별히 돋들리는 음절이 없고 개별 음절의 길이가 대체로 일정하여 개별 음절이 각자 같은 비중을 가지나 음운구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음높이가 달리 실현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음절과 음운 단어까지의 단위에서는 음높이가 변별 자질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운 단어가 모여 이루어지는 상위 단위인 음운구에서 음높이는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 한 문장의 각각의 음운 단어가 실제 발화에서는 다르게 묶일 수 있는데, 운율 단위가 어떻게 묶이는가에 따라서 개별 음절의 음높이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음절의 높낮이가 의미 변별의 기능이 없는 것과 달리, 성조는 개별 음절에 부과된 음높이가 실질적인 의미 변별을 담당함으로써 음절의 모음에 나타나는 고저의 변이를 통해 변별적 자질을 갖는다. 성조에는 성조 언어의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 어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쓰이는 유의미한 높낮이여야 한다는 점, 변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 성조는 절대적 높이가 아닌 상대적 높이라는 점, 음절마다 하나의 개별적인 성조가 놓여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베트남어에서는 개별 단어의 의미 차원에서의 변별이 이루어진다. 즉, 분절음 단위에서는 동일한 음가를 가짐에도 성조 단위에서는 뜻이 달라지므로 잘못된 성조를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다만 그 높이는 절대적 음높이가 아닌 상대적 음높이로서 각각의 시작점이 다르다. 따라서 변별은 발화 전체의 음높이 차원에서 다른 음높이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베트남어에서의 성조는 모두 6종류로, 알파벳 주음 표기의 위, 아래에 ‘ ˋ ˝ ˏ ˌ’ 등의 부호를 붙여 표시된다. 이들의 이름은 해당 성조가 사용된 대표적인 단어 한 개를 선택하여 지어졌다. 이 성조의 음가는 모음에서 나타나는 고저, 음조곡선, 굴절의 방법과 성문 협착의 방식으로 구별한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대상

실험 대상은 북부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초급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로,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1학년 여학생 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연령은 19~20세로 한국어 정규 학습 기간은 4개월이며,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교재인 <경희 한국어 1>과 고려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재미있는 한국어 1>을 학습했고 동 교재 2권을 학습중이다. 학습자들이 사용한 교재에는 모두 한글 학습과 종성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에는 말하기 연습에 발음 및 억양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56수업은 각 기능 영역별로 주 4회 1일

[56]억양 곡선에 대한 학습은 <재미있는 한국어> 2 권 4 과에서 이루어지나, 실험 당시 피실험자들은 1 권만 학습한 상태로 억양에 대한 별도의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시간씩 이루어진다. 교수진은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1년 이상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20대 중반~30대 중반 베트남인 7명과 남성 한국인 강사 1명으로, 교육과정 내에서의 한국인 모국어화자와의 접촉은 주 2시간이었다. 피실험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자 정보

번호	이름	나이	출생지/ 거주지	한국어 학습 기간	하루 중 한국 방송 및 음악 시청시간
SG1	NTH	19	하노이	4개월	7시간
SG2	PA	19	하노이	4개월	2시간
SG3	NTTM	19	하노이	4개월	4시간
SG4	NTT	19	하노이	4개월	10시간
SG5	NTH	19	하노이	4개월	5시간

3.2. 실험 자료

실험 자료는 4개의 음운구로 이루어진 문장의 서술어 음운구 첫 음절에 목표 종성을 배치한 7개의 문장으로 구성했다. 이를 위해 각 문장의 4음절 서술어의 첫 음절에 한국어의 종성 7가지인 /k, t, p, n, m, l/이 각각 배치된 용언의 어간을 배치하고, 두 번째 음절에는 첫 음절의 성격을 고려하여 폐쇄음 종성 뒤에는 선어말어미 '-겠-', 공명음 종성 뒤에는 '-던-'을 각각 배치하여 같은 성질을 지닌 선후행 음절의 성격을 비교하되, 연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실험에 사용된 어휘는 학습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나, 예습 과정에서 간단히 설명했다.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실험 문장>[57]

1. 밖이 시끄러우니 귀를 막겠어요.
2. 다음 주 월요일에 책을 받겠어요.
3. 그저께 투이 씨는 학교에 갔겠어요.
4. 오늘밤에 경찰이 도둑을 잡겠어요.
5. 집에서 엄마가 아기를 안던데요.
6. 계란을 바구니에 모아서 담던데요.
7.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야 알던데요.

3.3. 실험 절차

피실험자들은 실험 당일 실험자를 만나 별도의 발음 연습을 진행하며 간단한

[57]종성 / ŋ/을 가진 1 음절 용언이 없어 'ㅇ' 받침은 본 실험에선 배제했으며, /t/는'ㄷ'과 함께 'ㅆ'의

사용 빈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ㄷ’과 ‘ㅆ’을 둘 다 배치했다

의미를 제시함으로써피실험자가 지문에 대해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했다. 피실험자들은 최소 2차례 이상 혼자 연습을 한 후, 실험 장소에서 2회 낭독했다. 실험은 소음이 차단된 하노이2 세종학당 사무실에서 Lenovo S431 노트북과 삼성 HS330 마이크를 사용하여 진행했다. 데이터 수집 후에는 praat의 pitch 분석 기능을 통해 각 문장의 목표 음절에서 나타나는 음높이와 음높이의 길이, 기울기, 후행 음절과의 음높이 차이를 확인하여 각 값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해당 음절에서 나타난 베트남인 화자의 성조 유형을 확인했다.

서술어 음운구 내 음절 간 비교는 1음절과 2음절의 음높이를 통해 각각의 종성이 서술어 음운구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종성에 따라 음높이간 격차를 확인함으로써 종성이 음운구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4. 실험 결과

4.1. 음절 내 성조 형태

각 문장의 서술어 첫 음절에서의 음절에서 나타나는 길이와 음높이, 기울기는 다음과 같다.

[표 2] 음절 내 운율의 구조

종성 음운	/p/	/m/	/t/ (ㅆ)	/t/ (ㄷ)	/n/	/l/	/k/
음절 길이 (s)	0.08547	0.15966	0.10049	0.08529	0.15151	0.15541	0.15867
음높이 (Hz)	226.941	223.547	226.128	221.126	210.493	213.407	236.318
기울기	183.752	24.4756	194.442	229.283	48.9479	90.7454	299.657

폐쇄음 종성을 가진 음절은 공명음 종성을 가진 음절에 비해 길이가 짧은 편인데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인 화자의 발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음절의 길이는 폐쇄음 종성 음절이 공명음보다 평균 0.04804s가량 짧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폐쇄음이 짧게 나타난 것은 아니며, 폐쇄음 /k/ 종성을 가진 음절은 공명음의 음절 길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음절 말음이라 하더라도 사용된 받침 글자에 따라 길이가 달리 나타나기도 했는데, ‘ㄷ’ 받침과 ‘ㅆ’ 받침은 /t/로 발음됨에도 ‘ㄷ’에 비해 ‘ㅆ’이 0.0152가량 길게 나타났다.

그림 1‘ㄷ’의 음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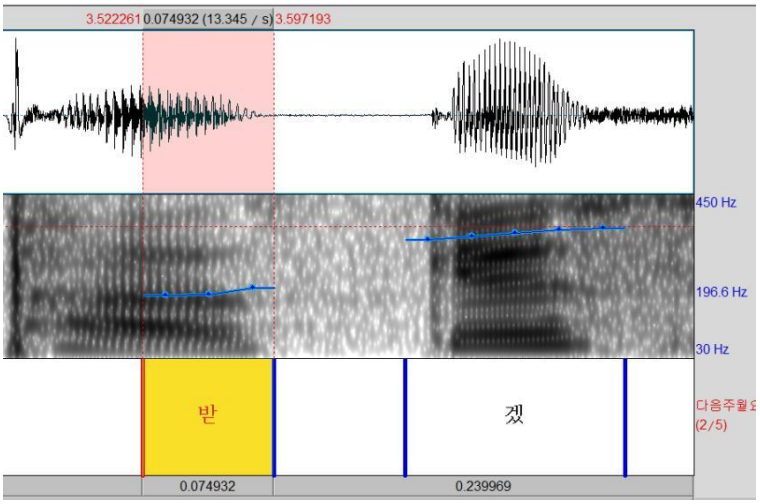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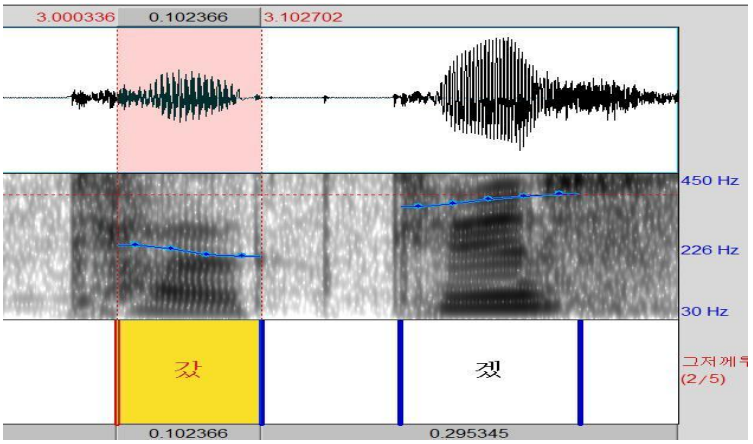


그림 2 '쓰'의 음높이



각 종성을 가진 음높이의 의 평균 및 최고값과 최저값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210~240Hz 사이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울림도보다는 조음 위치간의 관계성이 보다 긴밀하게 나타났다. 음높이의 평균값과 변동 폭은종성 /k/가 가장 높고 /n/과 /p/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보통 동일계열 폐쇄음과 공명음이 10Hz가량 차이를 보였다.

기울기는 폐쇄음과 공명음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명음은 음절의 길이가 길에도 기울기는 24.4756~90.7454 정도로 작은 편이었으나, 폐쇄음은 음절의 길이가 짧음에도 기울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가장 음절 내 음높이의 변화가 큰 종성은 /k/였다.

4.2. 선후행 음절 간 음높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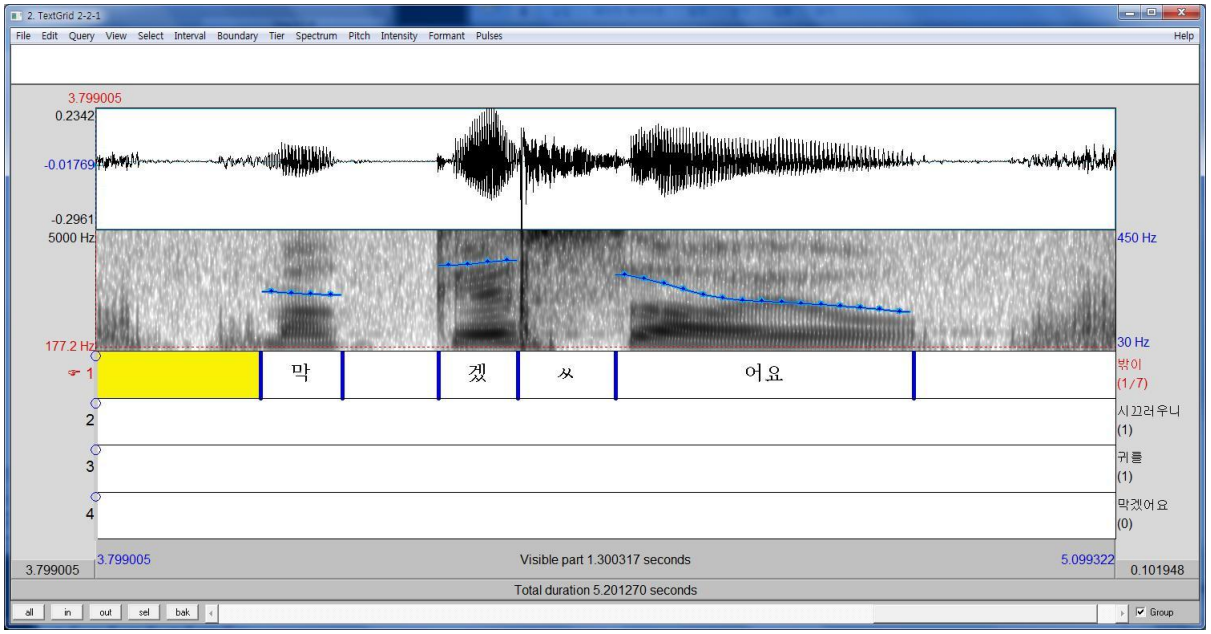
표 3 서술어 내 음절 간 음높이의 차이

종성	/p/	/m/	/t/ (ㅆ)	/t/ (ㄷ)	/n/	/l/	/k/

음운							
1 음절	226.9413	223.5474	226.1284	221.1266	210.4933	213.4072	236.3189
2 음절	328.328	283.9672	328.1375	328.7182	285.8705	290.8946	332.601
음높이 변화폭	101.3867	60.3098	102.0091	107.5916	75.3772	77.4874	96.282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발화에서의 음운구의 억양 곡선은 모든 낭독에서 LHLL 패턴이 고정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1음절과 2음절 간 음높이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종성의 공명도에 따라 두 음절간 음높이의 격차가 달리 나타난다. 종성 /k/, /t/, /p/가 포함된 첫 음절과 종성 /t/가 포함된 두 번째 음절의 음높이 격차는 95~110Hz로 나타나나, 종성 /n/, /m/, /l/이 포함된 첫 음절과 /n/이 종성인 두 번째 음절의 음높이 격차는 60~80Hz로 같은 조음위치에서의 종성 간에는 약 30Hz의 차이가 있었다.[58] 다음 그림은 1음절의 /k/ 종성과 2음절 /t/ (‘ㅆ’)의 음높이 격차를 나타낸다.

그림 3 /k/-/t/종성의 음높이 격차



이러한 음높이 간 격차는 각 음절의 성조 유형과도 관련이 있다. 대체로 첫 음절에서는 음높이의 형태가 하강 곡선으로 나타나나 둘째 음절에서는 상승 곡선 형태로

[58]Cao Wen-Cai (2013)의 연구에서 한국인 화자의 높은 음절과 낮은 음절의 음높이 격차가 50~70Hz 전후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인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난 격차는 해당 음절의 돋들림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나타남으로써 각 음절의 시작보다 음절의 끝부분에서 두 음절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5. 결론 및 제언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한국인 교사의 발화 등을 통해 학습을 통해 제시되는 바와 유사한 고정 운율 패턴을 사용함에도 억양의 형태가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학습자들이 학습한 패턴 유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과 각 음절에서 나타나는 음높이의 격차가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자연스러운 운율의 사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각 음절에서 나타나는 음높이를 운율 곡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성조로서 이해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한국어 문장을 발화할 때 폐쇄음을 만나면 베트남어에서 나타나는 변이성조를 똑같이 구현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본 실험에 따르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폐쇄음 종성을 발음할 때 한국어의 음높이를 벗어난 음높이의 운율 곡선을 사용한다. 이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폐쇄음 종성이 상승 성조인 타인 삭이나 하강성조인 타인 낭과 결합할 때 음높이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변이성조로 바뀌는 현상이 한국어 발화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보통 낮은 음높이로 발음되는 첫음절은 하향 성조인 타인 낭이나 타인 후옌과 함께 쓰이는데, 음운의 길이가 짧은 폐쇄음에서는 한국인의 발음 역시 타인 낭으로 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음절은 상승 성조인 타인 삭으로 나타나는데, 2음절에서 나타나는 았/었/겠 등 폐쇄음 종성을 가진 선어말어미들의 돋들림이 나타나는데, 이는 높은 음높이의 음절이어서뿐만 아니라 모국어 성조의 영향과 앞 음절의 낮은 음높이에 의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억양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음운 단위는 개별 성조가 아닌 음운구 단위의 억양 곡선임을 주지하게 하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성조 형태를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발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인의 한국어 억양 교육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에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운율 패턴에 국한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음절이 운율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서, 베트남인 학습자의 억양 교육의 기초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상 발화가 아닌 낭독 발화를 대상으로 실험을 전개하였으며 실험의 대상이 초급 수준의 여학생이었다는 데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자 집단의 일상 발화를 통한 후행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정희 (2009),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 및 교육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아 (2003), 한국어 화자의 영어 억양에 미치는 L1 억양구조의 영향과 억양교육, 영어교과교육 제2권 2호

김영선 (2001),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경음화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제15권 2호

김영옥 (2012),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음 발음 교육 전략: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민상희 (2010),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독학용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베트남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박한상 (2011), praat을 이용한 음성 분석 1부 : Sound analysis, 서울, 한빛문화

박한상 (2011), praat을 이용한 음성 분석 2부 : Editors, 서울, 한빛문화

백두현 외 (2013), 한국어 음운론, 서울, 태학사.

신승훈·윤규철 (2012), 음성음운실험 및 분석을 위한 자료구축처리 방안과 통계활용,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신지영 (2011), 한국어의 말소리, 서울, 지식과 교양.

안병섭 (2010),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서울: 월인.

양병곤 (2010), 프라트 (Praat)를 이용한 음성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만수출판사

양순임 (2005), 한국어 음절 말 폐쇄음에 대한 음향 및 청각 음성학적 연구, 한글, 한글학회

이은선 (2012),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통한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교육 방안 연구: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Cao, Wen-Kai (2013), 출현 환경에 따른 한국어 단어의 음높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Jun. S. A. (2000). "K-ToBI (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sion3.0)". Speech Science (음성과학). 7-3. 143-169쪽

정명숙· 신지영 (2000), 한국어의 시간 단위에 관하여,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261-278

정미지 (2012),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습득 연구-일본어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조민하 (2003), 연결어미의 종결기능과 억양의 역할,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최혜진 (2013),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 실현 양상 및 교육 방안,

탕허난 (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연음 현상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허용·김선정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서울, 박이정